

제 3장 한국 고.중세 인쇄기술의 양상

<목판 관련 자료: 2013.09.24>

-고려

A)夏四月 庚寅 韓彥恭還自宋獻大藏經 王迎入內殿邀僧開讀 下教赦(『고려사』권3, 성종 10년).

B)한언공이 황제에게 대장경을 줄 것을 청하였더니, 황제는 대장경 481함(函)을 주었는데 대략 2천5백 권이나 되었다(『고려사』권125, 한언공전)

C)2월 갑오일에 왕이 開國寺에 가서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 정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3월 기미일에 왕이 흥왕사에 가서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 4월 경자일에 왕이 귀법사에 가서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고려사』권10, 선종 4년(1087)).

-선원사의 위치 비정 자료

현 지산리의 근거

『동국여지승람』권, 강화부 고적조 ‘선원사의 옛터는 부의 남쪽 8리에 있는데, 지금은 장원서의 과수원이 되어 있다’고 기록함.

『강도부지』, 고적조 ‘선원사의 禪을 仙으로 고쳐 仙源里로 하였다’고 기록함.

A-② 선원사는 부의 남문에서 팔리에 있으며 속칭 上林院이라 한다. 지금은 장원서의 栗場이 되었다.(강도지)16)

A-③ 선원사는 仙源面에 있다. 지금은 장원서의 果園이 되었다. 옛날 상신 김상용이 본 면에 머물러서 禪源의 禪을 仙자로 바꾸고 이에 仙源을 호로 삼았다(여지도서)17)

A-④ 선원사는 仙源里에 있다. 고려 고종 때 최우가 세웠는데 그 화려함이 극을 이루었으니 500여개의 감실이 바로 그것이다. 禪을 仙으로 바꾸어서 지명을 삼았다.

…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그 터는 남아 전한다.(강화부지)18)

『고려사』권26, 원종 5년(1264) 6월 신해일에 왕이 자리를 옮겨 신니동(神泥洞) 임시 궁궐(假闕)로 가서 대불정 오성 도량을 베풀었다.

→신니동(현 선원면 지산리 신지동)

『속증보강도지』사찰, 선원사조 ‘仙杏里忠烈祠前一帶卽其遺址’고 기록함.

『전등본말사지』사찰, 선원사조 ‘今仙杏里忠烈祠前一帶卽其遺址’고 기록함.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

A)‘…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임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도 또한 금수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佛像과 梵書를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 걸려서 이룬 공적이 하루 아침에 재가 되어 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재집과 문무백관 등과 함께 큰 서원을 발하여 이미 담당 관서를 두어 그 일을 경영

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初創한 동기를 고찰하였더니, 옛적 현종 2년(1011)에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宋岳城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룬 뒤에 거란병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 신통한 힘을 빌어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국외가 편안하며, …’ (『동국이상국집』권25, 대장각판군신기고문)

B)9월 壬午 幸城西門外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更願 立都監 十六年而功畢(『고려사』권24, 고종 38년(1251).

-9월 임오일에 왕이 성 서문 밖에 있는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가서 백관을 거느리고 분향을 하였다. 현종 때에 새겼던 판본은 임진년(고종 19, 1232) 몽고 병화에 타 버렸으므로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다시 발원을 하여 도감을 설치하였었는데 16년 만에 준공되었던 것이다 (『고려사』권24, 고종 38년(1251).

C)隊長과 隊副 2천 명으로 하여금 《대장경》의 목판을 支天寺로 운반하게 하였다(『태조실록』권14, 7년(1398년) 5월 12일(무오)